

아이코노그래피 : 서양미술 속에 숨겨진 알레고리, 신화와 성서 읽기
윤 익 영

제 6 강 참수, 겁탈이야기

흰 옷을 입은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한 손엔 저울을, 한 손엔 검을 세워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감각적인 판단을 벗어나 순전한 이성으로 판결함을 뜻하고, 칼은 주저 없는 처단의 가혹성과 힘을 상징한다. 무장 여신 아테나는 검 대신에 창과 방패를 지닌다. 창과 방패는 방어와 지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격성을 나타내는 군신 마르스의 검과 대조된다. 그리스도교 미술에서의 검은 순교와 용맹을 상징한다.

1.1. 참수된 성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가 성화제작, 성자숭배를 거부했을 당시 가톨릭교는 더욱 성인들을 그리는 일에 힘 씀

이 때 성인들의 전기를 발굴해 낸 야코브스 다보라지네의 『황금 전설』은 가톨릭교 미술에 많은 참고가 됨

◆ 『황금 전설』의 카타리나

29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왕실 가문의 딸, 불굴의 신앙심이 투철(성 혼례)

로마의 막센티우스(Maxentius) 황제(306~312)가 청혼하지만 거절당함, 철학자들에게 그녀의 신앙이 비논리적인 것임을 설파토록 하지만 그들이 설득 당해 개종 함

황제는 철학자들을 처벌하고 카타리나는 대못이 박힌 수레바퀴로 짓눌려 죽이게 하려던 참에 벼락이 떨어져 수레바퀴가 부서지는 바람에 카타리나는 관례의 방식대로 참수

◆ 카타리나의 상징물

부서진 수레바퀴는 고문의 고통을, 검은 참수 당한 순교를, 책은 학식과 지혜를, 반지는 순결을 바친 성혼을 의미 함

◆ 카라바조의 (도판<성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두광 - 고대에서 태양신 헬리오스와 아폴론을 묘사할 때 사용했으나 5세기경부터 예수, 성모 마리아, 천사, 성인의 표시로 사용

종려나무 - 고대에선 승리와 명예를 상징, 그리스도교는 순교와 승리를 상징케 됨

1.2. 적장을 참수한 유딧(유디트)

◆ 유딧 - 가톨릭 성서 「유딧」 편의 주인공으로 예루살렘이 앗시리아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점령되었을 때, 적장 홀로페르네스(Holopherne) 장군을 포도주로 만취케 한 후 그의 목을 베어오는 큰 용기로 이스라엘을 구한 여걸 임

◆ 카라바조의 (도판<유딧과 홀로페르네스>)

유딧의 미간은 찌푸려졌고, 입술은 힘없이 다물었으며, 눈망울에선 민망스러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교차, 영웅 정신보다는 소심하고 안쓰러운 아낙의 현실적인 긴장감 : 카라바조가 선도했던 자연주의 면모

선과 악, 용맹과 두려움, 밝음과 어둠 같은 서로 반목적인 요소의 대립으로 극적효과 증

적장의 목을 내리치기 전 유딧의 기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루살렘을 높이기 위하여 제 손으로 하려는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유딧 13:4)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유딧 13:7-8)

◆ 악덕을 이긴 미덕의 알레고리 - 악덕이 원죄와 악마라고 하면 미덕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구원. 거세된 머리는 힘없는 남성 : 힘의 지배를 받아온 여성이 악마(남성)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는 페미니즘적 해석

“(하나님은) 바로 이 밤에 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쳐부수셨습니다.”(유딧 13:14)

◆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도판<유딧과 홀로페르네스>)

카라바조를 추종했던 화가 오라치오 젠틸레스키의 딸, 남성 중심의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여성 화가였으며, 아버지의 화실의 한 제자에게 겁탈 당함 ; 남성에 대한 복수의 표현이란 페미니즘 해석 - 유딧의 모습은 표독스럽고 원한에 찬 여인으로 주저 없이 목을 쳐내는 것이 카라바조와 대조적 임

바로크 시대에 오면서 유딧이 적장의 목을 베는 장면이 연출되지만, 초기 작품에선 머

리 가 담긴 포대자루나 참수된 머리를 들고 있었음(도판)

1.3.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살로메

◆ (도판<세례 요한의 참수>)

도망자 신세였던 카라바조가 몰타 섬으로 피신했을 당시 미술공훈으로 기사(騎士)서품을 받게 된 보답으로 그린 것(세례 요한은 카라바조가 속하게 된 몰타 기사단의 수호성인)

세례 요한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기사 미켈란젤로(f michelAG)”라고 자기 이름을 서명한 것

서명 앞에 ‘fra’ 즉, ‘형제(frate)’, ‘수사(修士)’ 혹은 ‘기사’(몰타의 기사들은 모두 수도사였음)를 뜻하는 ‘f’ 자를 넣음(그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명)

카라바조가 사형수 신분에서 기사서품을 받았다는 사실과 결부시켜 순교한 세례 요한을 자신과 동일시한 것(자신의 ‘순교’를 암시)

◆ 머리를 얹은 쟁반의 모티브는 살로메에서 유래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동생인 헤롯 안디바와 재혼하자 세례 요한이 근친혼의 부도덕성을 질타했고, 이에 분을 삼키지 못한 헤로디아는 첫 남편에서 난 딸 살로메를 사주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다. 헤롯의 생일잔치 때 살로메는 의붓아버지이인 왕 앞에서 요염한 춤을 추었고 그 모습에 넋이 나간 왕은 그녀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한다. 살로메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달라고 했다.

◆ 쟁반

세례 요한의 머리가 얹힌 ‘성물’로 숭배, 세례 요한의 용맹과 순교를 상징

쟁반 모티프는 14~15세기 중엽 특히 이탈리아 북부지방과 북유럽에서 대중적 인기

‘쟁반을 든 유딧’도 등장(도판)

♣ 요컨대 살로메의 쟁반은 유딧에게 넘겨질 수 있어도, 유딧의 검이 살로메에게 갈 수는 없었다. 검은 주로 순교나 유딧과 같은 불굴의 용기, 정의, 힘 등의 명예로운 덕목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인식(도판)

□ 페르세우스에게 참수된 메두사 머리는 (아테나 여신의) 방패에 박혀 무적승리를 상징

1.4. 현대의 유딧과 살로메

◆ 클림트의 <유딧>

<유딧 I> - 유딧은 대체로 악을 물리친 승리감이나 정의, 적개심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데, 그림에선 호색적인 승리감이나 성적 도취에 빠진 모습 ; 유딧을 상징하는 '용맹의 검' 대신 에로틱한 육체를 그녀의 무기로 삼았다. 그의 머리를 얻은 만족감에 취해 입술을 반쯤 벌리며 지그시 눈을 감는다.(도판)

<유딧 II> -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 유딧트는 성적 매력으로 한 남자를 파멸시키는 요부인 것이고, 장군은 그저 낭만주의 사랑을 한 순애보(도판)

◆ 모로의 <유령(살로메의 춤)>(1876년경)

춤추는 살로메 앞에 세레 요한의 머리가 나타나 피를 떨어뜨리며 그녀를 응시하는데, 관 레대로라면 세레 요한의 참수된 머리는 쟁반에 놓여야 한다. 한 남자의 머리를 원했던 살로메의 살의를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묘사한 것(도판)

◆ 영국의 상징주의 화가 비어즐리(Aubrey Beardsley, 1872~1893)의 『살로메』 삽화

살로메가 세레 요한을 사무치게 사랑했던 것으로 이야기 된다. 하지만 살로메는 어떤 방법으로든 세레 요한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머리라도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

순진하고 앳되어 보이는 세레 요한의 얼굴과 음흉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살로메의 얼굴이 대조적이며, 살로메의 무릎 밑에는 불어로 "요한, 나는 그대 입술에 키스를 하였네. 그대 입술에 키스를 하였네."라고 적힘(도판)

♣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은 낭만적 사랑과 요부로 나타난 팜프 파탈(숙명의 여인)의 주제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살로메', '유딧', '오르페우스' 이야기가 문학과 미술에서 자주 등장했다. 팜프 파탈이란 여성의 주제는 상징주의 화가들에게 완전해졌는데 여기엔 당시 활발하게 개척됐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영향을 끼쳤다.

1.5. 여인의 보복살해

◆ 들라크루아의 <메데이아>(1838년)

살롱전에서 의외의 호평, 4천 프랑에 정부가 사들임

한 비평가는 <메데이아>를 보고 "어떤 분출, 어떤 열정, 관람자의 정신을 거칠게 뒤흔드는 (...) 거의 관능적이라 할 수 있는 존재"라 평함

그녀는 마법과 주술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온갖 동식물들을 섞어 양약과 독약을 만들 줄 알았는데, 남편(아르고 호를 타고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갔던 이아손)으로부터 사랑을 배신당한 뒤 질투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남편과 그의 새 아내,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까지 모두 독살시켜 버림(이 같은 극단적 이중성은 낭만주의 미학과 잘 맞음, 도판)

◆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1793년)

마라는 루이 16세를 공개 재판에서 처형하도록 이끌었던 정치혁명가 중에 하나였고 화가 다비드도 그와 함께 자코뱅 당의 일원 임

루이 16세는 처형됐고 이에 불만을 품은 샤를로트라는 여인이 이 사건의 주도자가 마라라고 여겨 옥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그를 식칼로 수차례 찔러 정치적 보복
(도판)

◆ 뭉크의 <마라의 죽음 I>(1907년)

114년이 지나, 독일 표현주의에 서광이 되었던 노르웨이 출신의 뭉크가 그 주제를 다시 그렸다.

정치적 살해에서 성적인 살해로 바뀜 ; 피가 낭자한 시트에 전라의 한 남성이 맥없이 누웠는데 그 옆에 곳곳이 서있는 여인의 손발에는 피가 묻어 있다. 그녀는 성을 도구로 한 남자를 살해한 것이다.